

Leading Jeju for the Future

# JRI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 Policy Issue Brief

2023. 10. 25. vol. **384**

#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박 창 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Leading Jeju for the Future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 Policy Issue Brief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23. 10. 25. vol.384

발행처 : 제주연구원 발행인 : 양덕순

주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729-0500 팩스 : 064-751-2168

제주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 I. 들어가며
- II.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
- III. 일본의 마약범죄 정책 고찰
- IV. 마약범죄 예방 교육훈련기관 유치 및 관리 상의 시사점

# 1. 들어가며

- 최근 전세계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 왔으나, 마약 유통·사용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의 한계로 관련 범죄 발생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UN은 마약류 사범수를 기준으로 마약 청정국을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 함.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됐으나, 2016년 마약 사범수는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조사되어 마약청정국의 명성을 상실한 지 오래임
- 마약류 범죄 관련 특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과거엔 마약류 투약자가 대부분 30~40대였으나, 최근엔 20대 투약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또, 마약류 유통구조가 SNS, 인터넷 등에 의해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박동균 외, 2019)
- 현재까지의 추세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의 노출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약류 확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주지역의 마약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마약범죄 대응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마약범죄 관리 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II.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

### 2.1. 우리나라

#### 2.1.1. 마약류사범 일반 현황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함

-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코카인, 헤로인, 몰핀, 펜타닐, 페티딘 등 총 133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272종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수지, 칸나비놀, 칸나비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 총 4종이 해당함

○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수는 2018년 12,613명이었으나, 2022년 18,395명으로 조사되었음(<표 1> 참조). 즉, 마약류사범 수는 5년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냄

○ 마약류로 구분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12,035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마사범(3,809명), 마약사범(2,551명) 순으로 나타났음(2022년 기준)

○ 또, 마약류 유형별 사범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대마사범이 가장 큰 폭(약 148%)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 마약류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2022년 사범 수는 5년간 약 148%(대마), 74%(마약), 25%(향정신성의약품) 증가하였음

**<표 1>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마약류 유형별)**

연도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합계(명)
2018	1,533	1,467	9,613	12,613
2019	2,629	1,804	11,611	16,044
2020	3,212	2,198	12,640	18,050
2021	3,777	1,745	10,631	16,153
2022	3,809	2,551	12,035	18,39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 2.1.2.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형별 현황

- 마약류 범죄는 유형별로 밀조(제조), 밀수, 밀매, 밀경(재배), 투약, 소지, 기타 등으로 구분함
-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사범 수는 투약(8,489명)이 가장 많으며, 밀매 3,492명, 기타 2,272명, 밀경 1,712명 순으로 나타남(2022년 기준)
- 또, 범죄 유형별 사범 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밀수 사범수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약 167%)으로 나타났으며, 소지 사범수는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범죄는 5년간 약 119%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범죄 유형과 달리 신종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냄

**<표 2>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범죄 유형별)**

연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명)
2018	8	521	2,763	1,026	6,177	1,081	1,037	12,613
2019	5	783	3,437	1,161	8,210	1,185	1,263	16,044
2020	9	837	3,947	1,805	9,044	1,115	1,293	18,050
2021	9	807	3,229	1,151	8,522	1,214	1,221	16,153
2022	6	1,392	3,492	1,712	8,489	1,032	2,272	18,39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 2.1.3. 마약류사범의 일반 특성

- 마약류사범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마약류사범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마약류 유형 중 마약 관련 사범 수는 남성과 여성 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약 36%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때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 대마사범의 수가 5년간 약 257% 증가했다는 것임
-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단속 시 여성의 마약류사범 증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관리 시 여성의 대마 접근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3>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마약류유형별, 성별)**

연도 연도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1,367	166	715	752	7,812	1,801	9,894	2,719
2019	2,283	346	926	878	9,258	2,353	12,467	3,577
2020	2,833	379	1,045	1,153	9,615	3,025	13,493	4,557
2021	3,322	455	993	752	8,020	2,611	12,335	3,818
2022	3,216	593	1,323	1,228	8,890	3,145	13,429	4,966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 직업별 마약류사범 수는 순서대로 기타와 무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와 무직 유형의 사범 수는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직업 유형은 약 35%, 무직 유형은 약 31%로 나타남(2022년 기준)
- 직업별 마약류사범 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직업유형이 약 34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회사원(약 113%), 유흥업(약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범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회사원 계층은 상대적으로 직업이 안정적임에도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계층의 급증은 마약류에 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임

<표 4>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직업유형별)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무직	3,753	4,972	5,826	5,492	5,792
농업	426	406	553	287	461
도소매업	63	93	56	83	80
유흥업	104	151	126	94	202
서비스업	175	225	231	238	245
금융/증권	21	13	34	20	23
부동산업	32	19	25	38	46
노동	407	588	691	693	790
회사원	534	723	962	1,010	1,137
공업	126	206	278	246	174
건설	80	130	126	76	62
의료	98	130	222	156	165
운송업	98	109	88	75	84
가사	168	180	270	195	187
예술	43	49	62	72	66
어업	29	38	34	50	28
학생	123	241	368	494	543
직업미상	1,382	1,695	1,805	1,487	1,854
기타	4,951	6,076	6,293	5,347	6,456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 마약류사범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마약류사범의 주 연령층은 40대였으나, 2019년 및 2020년은 30대, 2021년과 2022년은 20대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20대 마약류사범의 비율은 약 32%, 30대의 경우 약 26%, 40대의 경우 약 15%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마약류사범 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대는 약 174% 증가했으며, 30대는 약 57%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약 15%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5년간 현황을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증가폭(약 236%)은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5세 미만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8년 1명에서 2022년 41명으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5>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연령별)

(단위: 사범수(명)/인구 10만명)

연도	15세미만	15-18세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미상	합계
2018	1	70	72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2019	4	101	134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2020	2	160	151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2021	6	273	171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022	41	291	149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 한편, 마약류사범 관련 특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은 2020년 급감하다 202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관세청, 2021)
-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항공편 운항의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 등으로 복잡·다양화되었기 때문임(관세청, 2021)
- 최근에는 마약류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강선우 의원실, 2022)
  - 마약류 유통 및 판매의 대부분(72.8%)은 익명성을 보장한 텔레그램을 통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전화함에 따라 마약류 거래의 공간은 인터넷과 SNS로 변화하고 있음

## 2.2. 제주지역

### 2.1.1. 마약류사범 일반 현황

- 검찰 마약동향 통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총 마약류사범수는 대상 지역 11곳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검찰 마약동향 통계의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전북, 광주전남, 충북, 제주 등으로 구분함



-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해보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수는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 지역 중 10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의 마약류사범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냄
  - 그러나 5년간 인구기준 마약류사범수 추이를 살펴보면, 마약류사범 증가율은 제주지역이 대상지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은 2018년 대비 9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현황(총 사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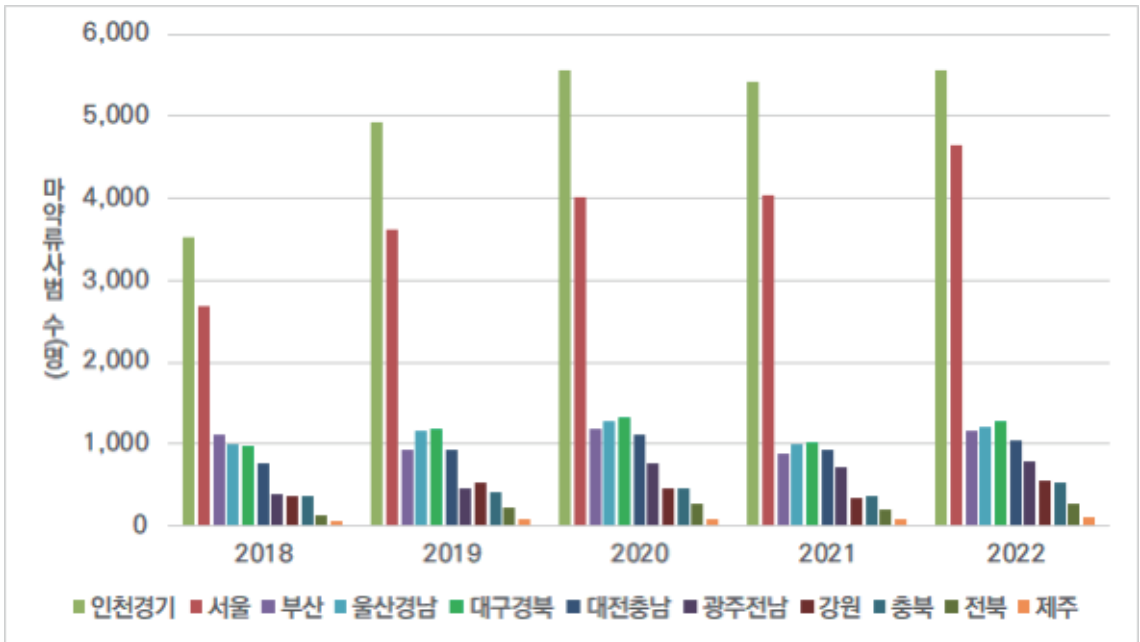
연도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2018	12,613	2,677	3,530	1,125	1,001	977	751	363	140	391	362	56
2019	16,044	3,607	4,931	935	1,156	1,193	923	538	226	468	419	89
2020	18,050	4,015	5,555	1,191	1,278	1,320	1,112	465	274	751	455	93
2021	16,153	4,044	5,407	880	988	1,015	932	351	204	715	370	75
2022	18,395	4,640	5,559	1,159	1,215	1,279	1,042	559	274	778	526	113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표 7>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현황(인구 10만 명당 사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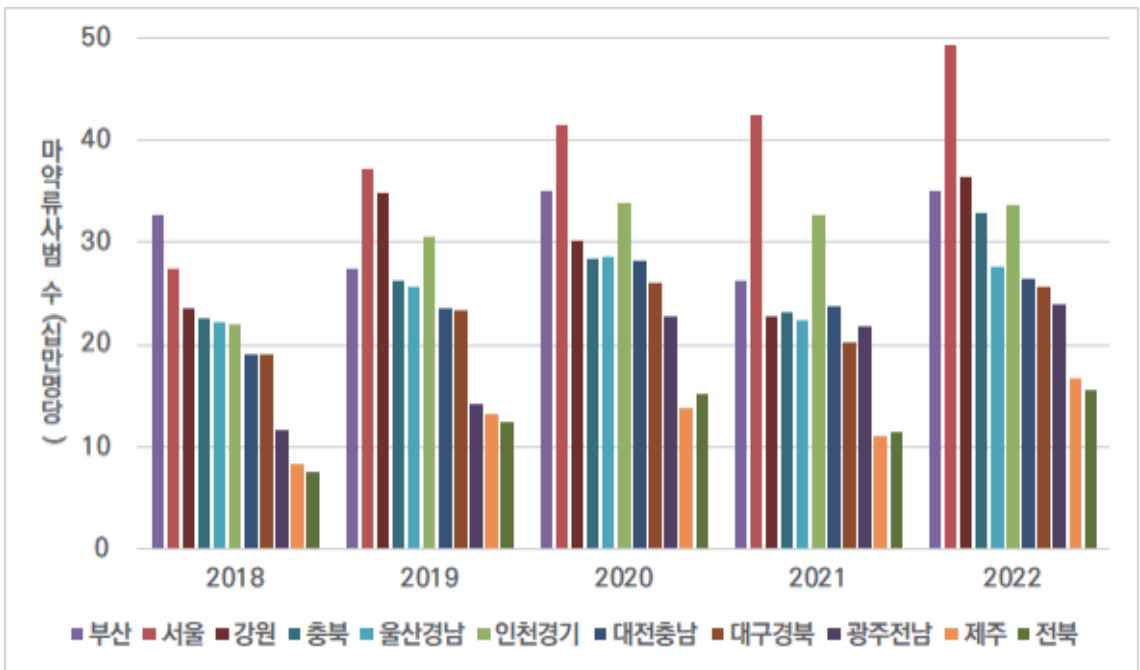
연도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2018	24.34	27.41	22.02	32.69	22.10	19.01	19.11	23.52	7.62	11.70	22.64	8.39
2019	30.94	37.07	30.44	27.39	25.63	23.37	23.43	34.90	12.42	14.07	26.19	13.26
2020	34.83	41.53	33.93	35.11	28.55	26.10	28.22	30.14	15.19	22.75	28.42	13.79
2021	31.28	42.53	32.74	26.27	22.27	20.25	23.63	22.81	11.42	21.84	23.16	11.08
2022	35.76	49.21	33.58	34.93	27.67	25.76	26.36	36.38	15.48	23.95	32.98	16.66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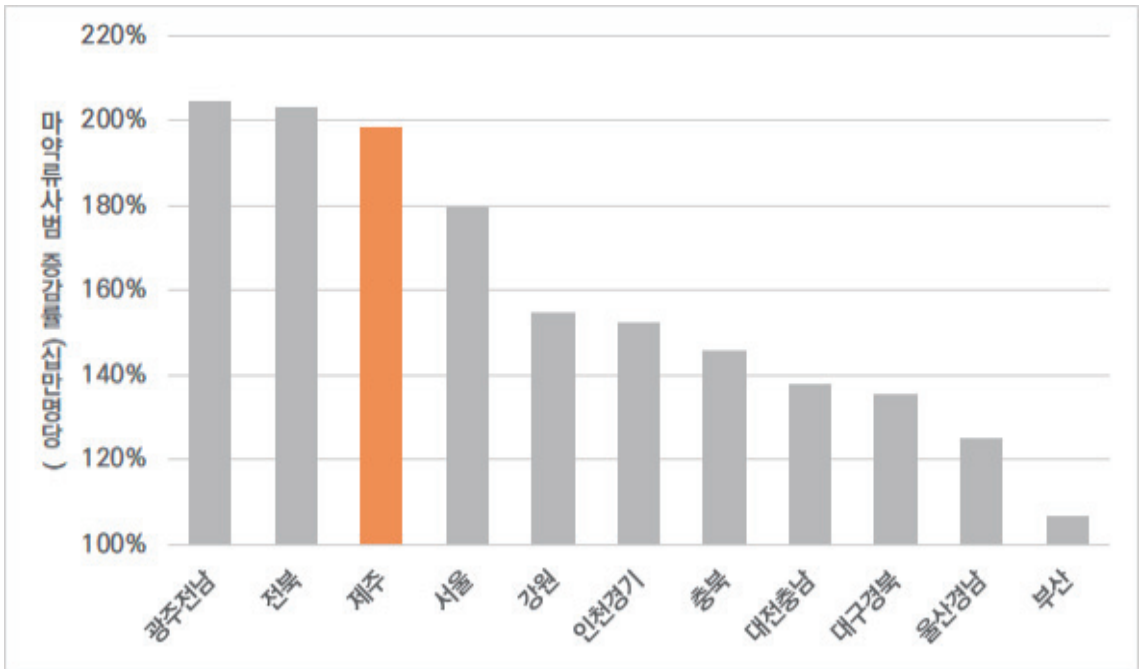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그림 1>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추이(총 사범수)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그림 2>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추이(인구 10만 명당 사범수)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그림 3> 지역별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증감률 비교(인구 10만 명당 사범수)

-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제주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그림 3> 참조)
  - 전국 평균과 대비하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수는 2018년의 경우 34% 수준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47% 수준으로 나타났음
- 특히,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총 사범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전남, 제주, 전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특성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지역에서 사범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주지역의 마약범죄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함

## 2.1.2. 주요 특성

- 본 고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 범죄유형 트렌드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마약류사범 관련 특성을 살펴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에 관한 국민인식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음. 그 결과를 살펴보면, 타지역의 인식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인식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에 관한 국내 국민인식도는 2020년 78.7점, 2021년 80.1점, 2022년 81.0점으로 조사되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2020년 83.1점, 2021년 81.6점, 2022년 75.5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 마약류 범죄 유형별 현황과 달리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기본소득당, 2022)
  -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하였으나, 제주지역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투약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의 2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기본소득당, 2022)
  - 2022년의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관광객, 외국인 등)이 많은 지역임. 이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총 마약류사범 중 7.1%인 것으로 나타났음(기본소득당, 2022)
  - 일례로, 2022년 1월에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된 바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하였음

## Ⅲ. 일본의 마약범죄 정책 고찰

- 전세계적으로 마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마약류범죄 근절과 이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마약 보고서 2023'(2023.06.25.)에 의하면, 2021년 2억 9,6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바 있음
  - 2021년 마약 사용자는 10년 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역시 10년 동안 45%(3,95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마약 대국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 중앙정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 규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약 관리조례',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등 4개의 법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신종약물에 관한 이슈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정약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일본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 조례, 주요 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함

### 3.1. 조례

#### 3.1.1. 현황 및 의의

- 일본의 지자체 중 마약범죄 피해가 큰 지역은 마약방지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역사적으로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해왔음. 이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마약 관련 조례 제정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총 47개 광역지자체 중 26곳이 조례 제정
- 이때 지자체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규제대상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마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일례로 '의약품 의뢰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정약물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성분이 비슷한 '지정 외' 약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처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 약물을 지사(知事)지정약물이라 함

### 3.1.2. 제정 사례

- 2005년 일본의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쿄도(東京都)에서 약물남용방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일본에서 신종약물은 1995년부터 합법약물 또는 미규제약물로서 판매되고 있었음
  - 2003년 도쿄도의 '약물남용대책 관련 조사'를 통해 위법성분 발견 후 판매금지됨
-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이시가와현(石川県), 호고현(兵庫縣) 조례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용도 이외에는 흡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음
  - 호고현(兵庫縣)은 2014년 기존의 규제대상을 넓혀 '신종약물'을 정의하는 조례를 규정함
- 오사카부(大阪府) 조례는 부청의 공무원과 함께 경찰이 위험약물(신종약물) 판매점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규정하였음
- 돗토리현(鳥取県)은 2013년 약물 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전면 시행하였음
  - 사람에게 흥분이나 환각 작용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지사가 지정한 다음, 해당 물질에 관한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을 금지하고 별도의 벌칙을 마련하였음
- 또한 돗토리현은 2014년 전국 최초로 마약에 대한 '포괄규제'를 규정하고, 화학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약물의 제조부터 소지까지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돗토리현은 일본의 기존 지자체의 조례의 장점을 적용하여 신종약물에 대한 규제를 심화시킴
- 돗토리현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일본의 타 지자체는 규제 강화를 위해 지사지정약물이 아니어도 대마나 각성제 등과 동등의 유해성이 있는 것을 '위험약물(신종약물)'로 정의하였으며, 제조 및 사용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확산하였음

- 유해성을 포함한 약물을 '지사지정후보약물'로 지정, 해당 약물의 신고 의무화 등의 지자체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쿄도나 아이치현, 오사카부 등은 제조부터 소지, 사용까지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성분을 특정한 지사지정약물로 한정하고 있음

**<표 8> 마약대책 관련 일본 지자체 조례 사례**

구분	내용
도쿄도	· 일본의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약물남용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2005년)
와카야마현 이시가와현	· 유통시 용도 이외에는 흡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 의무화
효고현	· 유통시 용도 이외에는 흡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의무화 · 기존의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신종약물'로 정의하는 조례 규정(2014년)
오사카부	· 오사카부청의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신종약물 판매점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최초 규정
돗토리현	· 약물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전면 시행(2013년) · 흥분이나 환각 작용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지사가 지정하고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의 금지 및 벌칙규정 마련 · 전국 최초로 마약에 대한 '포괄규제'를 규정하여 화학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약물의 제조부터 소지까지 금지'하는 조례 제정

## 3.2. 정책 사례

### 3.2.1.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정례화

-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은 성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은 문제는 인터넷, SNS 등의 활성화로 일본 지역사회에도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1997년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 바 있으며, 5년마다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본 전략에는 약물남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목표를 제시하며, 관련 현황, 문제점,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또, 관계부처에서 강구해야 할 대책도 명시하고 있음
-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모든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보건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일본 초·중·고등학교는 체육과와 보건체육과를 중심으로 특별활동, 종합 학습시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일례로, 강연회, 약물 의존증 예방교실, 길거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 위험성과 유해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음

### 3.2.2. 위험약물 긴급 단속활동 강화

- 일본은 위험약물(신종약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2014년 7월 약물남용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험약물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약물의 실태 파악 철저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정약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정
  - 지정약물 단속 강화(일제 입회검사, 집중단속 실시 등)
- 긴급대책에 의한 조치에 따라, 위험약물 판매점포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규제 및 단속 대응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위험약물의 판매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위험약물의 실태파악과 그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신속 정확한 규제 및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전영실 외, 2017)

### 3.2.3. 마약 근절 홍보활동

- 일본의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나 관계기관에서 마약의 위험에 대한 강연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음
  - 10월과 11월에는 마약·각성제 남용방지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지자체는 마약중독자상담원, 마약단속관,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약물남용자 치료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조언 및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4>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한 마약근절 캠페인 포스터 예시(좌: 후쿠오카현, 우: 도쿄도)

### 3.3.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일본의 마약대응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련 법과 지자체의 별도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신종약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에 따라 예방교육을 학교보건계획에 반영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둘째, 신종약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정약물 이외에도 지사가 지사지정약물로 지정하여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셋째,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 마약단속 공무원은 지사지정약물 제조 및 판매장소에 입회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넷째, 지자체는 마약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중단하거나 행정명령 등의 권한이 있음
  -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마약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자체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학생의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V. 마약범죄 예방 교육훈련기관 유치 및 관리상의 시사점

- 제주지역 마약류사범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지 않지만, 최근 지역 내 투약사범 증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도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2023.05.02.),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중독 예방 캠페인 등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본 브리프에서는 마약범죄 대응 사례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교육훈련기관 유치 및 지자체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유치

- 제주지역은 마약 유통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동안 마약 관련 문제가 널리 인식되지 못하였음. 이에 제주도민의 마약류 인식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지역 내의 마약 투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는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 10대와 20대의 마약 문제는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사회 확산의 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인한 2차, 3차 범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즉,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전담하는 국내의 대표적 기관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할 수 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4월 보건복지부 인가를 통해 설립하였음
- 다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광역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 세종, 울산 지역에는 지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재범율도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지역사회로부터의 근절과 범죄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라 할 수 있음
  -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함. 이에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가칭))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확대 운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제주지부 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교육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나갈 필요



<그림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예시

## ■ 마약류 판매점 단속 기능 강화

- 최근 마약류의 접근성 및 제조·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마약류 문제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2차, 3차 범죄(절도, 강도, 살인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냄
- 이와 같은 위험성은 마약 문제가 국제적 화두인 이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약류의 사전 안전관리 체제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마약범죄는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다는 특성이 있음. 즉, 마약범죄에 관한 심각성은 실제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과거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10배 정도로 추정했으나, 최근은 28~30배로 나타남<sup>1)</sup>
- 마약범죄는 확산 전의 사전 접근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마약 근절을 지역사회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마약류 관리 기능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주도에 마약류 판매점 등의 단속 기능을 보완할 필요
  - 현재 제주도청의 마약범죄 관련 업무는 마약류관리(약물 오남용), 중독질환 지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
  - 일례로, 일본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마약류 판매점 관리 후 마약류 판매점포가 급감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음

1) 이코노미스트(2023.04.18.)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대한민국은 어쩌다 '마약 공화국'이 됐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4180001>)

## 참고문헌

### ■ 국내·외 문헌

관세청(2021), 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

대검찰청(2018), 2018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2019), 2019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2020), 2020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2021), 2021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2022), 2022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2022), 2022 마약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박동균, 장철영(2019),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6(3), 67-94.

전영실 외 (2017)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佐藤哲彦(2009) 麻薬とは何かー「禁断の果実」五千年史, 新潮社

船田正彦(2016) 危険ドラッグの基礎知識, 講談社サイエンティフィック

### ■ 보도자료

강선우 의원실(2022) “SNS 마약 거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 대책 마련 절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angseo-kap&logNo=222896742691&categoryNo=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기본소득당(2022) “관광객에 의한 마약범죄 수사 보강해야”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B%A7%88%EC%95%BD&uid=1938)

이코노미스트(2023.04.18.)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대한민국은 어쩌다 ‘마약 공화국’이 됐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4180001)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www.jri.re.kr](http://www.jri.re.kr)